

번역기준과 기능등가에 대한 이해

손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풍부히 하여나아가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99페이지)

오늘날 번역학연구는 지난 세기에 비할바없이 그 폭과 심도가 날을 따라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방법론이 매우 다양해지고있다.

번역은 그 목적과 내용 및 형태에 따라 각이한 방법이 적용되는 복잡한 작업이다. 번역은 단어들을 옮겨 맞추어놓는 단순한 공정이 아니며 대응되는 문법구조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도 아니다.

번역의 복잡성은 번역기준의 출현을 요구한다.

일부 번역연구자들은 번역에서 원문에 절대적으로 충실할것을 주장하며 반면에 일부 번역자들은 번역의 순란성 혹은 유연성을 주장하고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번역작품의 내용은 원작에 일치해야 하며 그 형식은 역문언어에 매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리설을 주장하면서 글을 쓸 때 하나의 동의어만 바꾸어도 미묘한 내용이나 효과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견해로부터 번역에서 원문의것을 많이 잃을수 있지만 역자는 그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매꾸어야 한다는 효과보상원칙도 제기하고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번역기준이란 각이한 주제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기준의 존재자체에 대해서까지 의문시하고있다.

번역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할수 있다. 서로 다른 두 민족어들사이의 합리적인 번역기준의 선택은 구체적인 두 민족어사이의 언어류형적친족성과 문화적류사성정도, 번역할 원문의 문체적특성에 의존된다.

지금까지 여러 번역리론들에서 제기된 번역기준들을 요약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내용대등의 기준, 형식대등의 기준, 완전대등의 기준, 부분대등의 기준, 기능대등의 기준, 언어실현방식의 기준 그리고 역문실용목적의 기준이 있다.

내용대등의 기준에서는 표현방식에 관계없이 원문의 기본적인 사상내용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형식대등의 기준에서는 원문의 언어표현구조들을 역문에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형식의 일치를 통하여 원문의 이야기내용을 구조의미적으로 정밀하게 감수하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완전대등의 기준에서는 원문의 개별적인 언어표현수단들이 담고있는 의미와 그 문장구조까지 남김없이 그대로 역문에 옮겨 원문의 사상이 세부와 전체의 통일속에서 이해되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분대등의 기준에서는 민족어의 특성으로 일부 옮길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주고 옮길수 있는것만 재현시켜 원문의 사상을 대체적으로 살리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기능대등의 기준에서는 원문에 있는 표현수단들의 구조형식적특성들을 옮기는것이 아니라 표현수단들과 표현수법들이 나타내는 언어적기능들을 등가적으로 역문에 옮겨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번역문실현방식의 기준은 글말인가, 입말인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며 역문실

용목적의 기준은 같은 원문을 놓고도 전문가들을 위한 학술용번역문, 일반독자를 위한 대중용번역문, 편역, 간역, 선역 등으로 갈라서 적용하는 기준이다.

번역도 하나의 언어적통신 즉 언어적정보의 전달인것만큼 정보리론의 견지에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중에서 처음의 다섯가지 기준들은 정보내용을 중심으로 본 기준이고 여섯번째 기준은 정보전달통로를 중심으로 본 기준이며 일곱번째 기준은 정보접수자의 접수능력을 중심으로 본 기준이라고 할수 있다.

언어류형적친숙성이 비교적 강한 언어들사이의 번역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일치, 언어단위들의 1:1대응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사이에서는 문화적류사성도 비교적 강하므로 표현방식에서의 일치와 사상내용에 대한 동일한 이해에서도 난관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어와 영어사이에는 언어문화적차이로부터 오는 표현적차이가 매우 크다. 이 차이는 번역에서 구조적대응이나 형식대응이 아니라 기능등가에 의해서만 결정적으로 줄어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등가는 언어의 여러 기능들에서의 등가를 가리킬수 있으나 번역의 견지에서는 주로 통신적기능과 수사학적기능에서의 등가를 의미한다.

번역에서의 기능등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언어의 기본기능들을 잘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번역도 하나의 언어적통신 즉 정보의 교환인것만큼 그 기능들을 통신의 세가지 구성요소인 원작자(source, 정보의 출발점), 이야기내용(message, 정보의 내용), 접수자(receptor, 정보의 접수자)와의 련관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원작자의 견지에서는 언어의 기본기능들을 세가지 기능 즉 감정표현기능, 인식기능, 미학적기능으로 볼수 있다.

감정표현의 기능은 대체로 접수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거의 관계없거나 전혀 관계없는 기능으로서 감탄, 분노, 기쁨, 아픔 등을 나타내는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것들은 듣는 사람에게는 거의 의의가 없고 다만 무의식적이며 주관적인 어음적표현에 의한 감정이나 느낌의 발현일뿐이다.

인식적기능은 대체로 비음성적인 언어행위의 한 형식으로서 사유와 추리 등 속생각에 작용하는 언어의 기능이다. 물론 일부 사고는 직관적련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상의 방법으로 진행될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한 인식적기능은 모든 사유에서 가장 일반적인것이다. 그것은 거의 모든 형태의 복잡한 사유들은 어음적기호들을 리용하여 진행되기때문이다.

미학적기능은 말과 글을 리용하여 미학적표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균형이라는 정적인 요인과 룰동이라는 동적인 요인에 의해 보장된다. 이 균형과 룰동은 대구, 대조, 두운, 비유적의미들, 어순바꿈을 비롯한 여러 문체론적수법들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수사학적수법들을 정확히 선택하고 적절히 분포한다면 원작자는 높은 수준의 미학적요구를 달성할수 있다.

또한 이야기내용의 견지에서는 두가지 기본기능들인 대상지적의 기능과 수사학적기능을 갈라볼수 있다.

대상지적의 기능에는 자체의 두가지 소기능들인 명명적기능과 제시적기능이 있다.

명명의 기능은 매 언어가 무수한 사물현상들과 그 특성들을 각이한 방법으로 구분해 주기때문에 번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어느 언어에 있어서나 개개의 단어로 다른 언

어에서 나타내려는 독특한 특징적요소들을 다 구체적으로 찍어 지적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례로 단어 **people**이 수천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나타낼수도 있으며 혹은 **the people living next-door to me**처럼 구체적인것으로 될수도 있다. 이것은 언어가 어휘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문맥과 정황속에서 대상을 명백히 나타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제시기능은 한 지시대상에 대하여 간단히 그 특성을 규정지어주거나 그 어떤 사건에 대하여 에둘러 암시해주는 식으로 서술해줄수도 있다. 수사학적기능은 절이상의 단위들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형태의 표현방식 그리고 반복, 함축, 대구, 두운, 의성, 강조, 은유, 환유 등 각이한 수사학적수법들에 관계되는 기능이다.

또한 접수자의 견지에서는 두가지 기능 즉 원작자와 접수자사이의 교체기능과 접수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의 인식상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원작자가 이야기내용을 리용하는 기능을 들수 있다.

언어의 교체기능은 사람들사이의 련계를 지어주고 그 련계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으로서 넓은 범위에서는 일명 사회적기능이라고도 한다.

언어의 교체기능은 영어에서 지적인 정보보다는 《Hi.》나 《Lovely day, isn't it?》 등과 같은 교감적인 목적을 가진 인사말 등에서 볼수 있다. 두번째 기능인 접수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언어의 기능에는 네가지 기능 즉 통보, 명령, 수행, 정서의 소기능들이 있다.

통보적기능은 접수자에게 그 어떤 정보를 줌으로써 그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것으로서 이 기능은 거의 모든 본문들에서 다 나타나기는 하지만 언어사용의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 실례로 기술문건에서는 이 통보적기능이 정점에 달하며 웅변글에서는 거의 최소에 이른다.

언어의 명령적기능은 접수자를 움직이게 하여 그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것이지만 항상 동사시킴형으로만 주어지는것이 아니다. 재촉이나 설복, 청원 혹은 암시하는 표현들도 모두 접수자가 반응하여 움직이게 하기 위한것이다.

언어의 수행적기능은 접수자의 지위나 상태에 변화를 주는 기능으로서 신청서, 청원서, 추천서, 계약서를 비롯한 문건들과 선서, 규약, 법률, 규정 등에서 표현된다.

언어의 정서적기능은 접수자의 감정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주로 통담, 익살, 칭찬, 격려, 비난, 야유, 조소 등에서 표현된다.

그 어느 본문이나 하나의 언어적기능만을 가지고있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 기능들이 동시에 있게 된다. 하나의 기능이든 여러가지 기능이든 한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능들은 원작자, 이야기내용, 접수자라는 통신의 세 구성요소를 다 고려하여 만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이 세 구성요소가 적극적인 언어적통신인 번역에서 다같이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이다.

그 어떤 본문을 번역할 때 역자는 원문의 이야기내용을 리해할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원문의 대리접수자이며 이야기내용을 다른 접수자들이 리해하게끔 접수자연어로 번역해놓는다는 의미에서는 그 역문의 대리원작자로 된다.

결국 역자가 원문을 대리접수자의 견지에서 정확히 옮겨야 한다는것은 곧 원작자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암시하는것으로 되며 다른 한편 번역은 그 역문의 정확한 접수자에 대한 명백한 사전고려가 없이는 착수하지 말아야 할 작업이라고 하는것은 접수자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이야기내용이며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본 대상

지적의 기능과 수사학적기능들이다. 그것은 번역활동에서는 흔히 원작자의 의도와 접수자의 접수능력이 사전에 제시되며 만일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문을 통하여 원작자의 의도와 접수자의 접수능력을 대체적으로 파악할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거의 모든 본문들에는 이러저러하게 대상지적의 기능과 수사학적기능이 있게 되기때문이다. 이야기내용의 구조가 서술인가, 묘사인가, 해석인가, 논쟁인가, 설복인가에 따라 대상서술적기능이 기본인가 아니면 수사학적기능이 기본인가가 결정된다. 이 두 기능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기능들로서 항상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에서 중시되고있는 수사학적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실현에 작용하는 세가지 요소인 본문(본문의 전체와 부분), 접수자(수사학적효과를 이해하는 역문독자), 배경(이야기내용의 외적배경과 해당 문화의 내적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본문을 중심으로 수사학적기능을 볼 때에는 어휘문법적통일과 의미론리적완결이라는 전일성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통일과 완결성은 본문전체에 적용될수도 있고 본문의 어느 한 중요한 부분에 적용될수도 있다. 접수자를 중심으로 수사학적기능을 볼 때에는 충격과 호소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제기된다. 문맥과 정황에 맞는 기묘한 표현을 적절한 형식에 담아 쓰면 그 효과는 독자 즉 접수자에게 크게 작용한다. 실례로 신문보도기사제목을 《Pyongyang Presents Pictures of Peace plus Prowess》라고 하는 경우를 들수 있다.

배경을 중심으로 수사학적기능을 볼 때에는 두가지 요소 즉 표현형식이 해당 내용에 맞는가 하는 표현적적합성과 그 표현형식이 해당 문화의 특성에 부합되는가 하는 문화적타당성이 있다. 격조가 높은 본문이면 강한 수사학적구조가 필요한데 이 경우 어떤 수사학적형식이 적합하겠는가 하는것은 주로 해당 언어의 표현방식에 달려있다. 아랍어와 같은 일부 언어들에서는 원쑤들을 단죄할 때 시적표현을 쓰지만 조선어와 같은 일부 언어들에서는 수사학적물음문을 많이 쓴다.

문화적타당성이란 어떤 표현형태가 해당 언어문화의 특성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례로 영어의 《They are Cain and Abel.》을 조선어에서는 《그들은 형제간이지만 원쑤처럼 서로 사이가 매우 나쁘다.》로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 문화적타당성은 수사학적표현의 문화적변형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언어문화적상관성이라고도 할수 있다.

수사학적수단들과 수법들을 적절히 리용하여 원문과 역문에서 수사학적기능의 동일성 혹은 등가를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언어의 다른 기능들보다 이 기능이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기때문이다.

번역에서 수사학적기능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문에서의 이러한 수사학적공정들과 수법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주의깊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역자는 각이한 수법들을 리용하여 역문에서 이 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처럼 역자는 번역할 때 원문의 수사학적수단들과 수법들을 기계적으로 모방할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것들이 노는 기능을 정확히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 형식이 아니라 그 기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